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연준에 희소식: 임금과 인플레이 둔화 보인다
- Bloomberg: 핵심 인플레이 지수 둔화...소프트 랜딩에 도움준다
- Bloomberg: 미 연착륙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달러 약세 이유는?

#### [서부 항만]

- CNBC: 캐나다 → 미국 철도 교역량, 계속 감소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국 근로자들 드디어 휴가에 죄책감 없어
- WSJ: 골드만삭스, 인재들 떠나 조직 개편 위협받다
- WSJ: Walmart의 미래형 창고 내부 모습
- WSJ: Intel, PC 수요 회복으로 수익 찾아
- WSJ: Facebook, 백악관 압력 수용해 코로나 게시물 삭제
- CNN Business: 맥도날드, 새로운 CosMc's 레스토랑 콘셉 공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Wages and Inflation Ease as Fed Considers Next Move

##### 연준에 희소식: 임금과 인플레이 둔화 보인다

- 연준이 향후에 추가 금리를 더 시행 할지 아닐지 검토하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주는 올해 2분기에 작년 동월에 비해 임금을 1% 더 지출한 것으로 오늘 연방 노동부 발표 결과 나타났다. 1분기와 비교해서는 1.2% 더 지출했다.
- 연준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보수 증가율을 측정하는 고용 비용 지수는 올해 2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하여 1분기의 4.8% 상승에서 둔화되었다.

WSJ 기사

#### Bloomberg: Key US Inflation, Wage Measures Cool in Boost for Soft Landing

##### 핵심 인플레이 지수 둔화...소프트 랜딩에 도움준다

-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수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6월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3% 상승했는데,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 2년여 동안 가장 낮은 것이다.
-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 지수(인플레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수)는 예상보다 낮은 4.1% 올랐는데 이 것 역시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 반면에 인플레이 조정 소비자 지출은 6월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해 미국 경제가 2분기에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낮은 임금 상승을 포함한 이 모든 수치를 포함할 경우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즉, 한세대 만에 가장 놀라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일자리 손실 없는 적절한 인플레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Economists See Signs of 'Soft Landing' for US. Here's Why 미 연착륙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연착륙 가능성은 크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로 둔화되었고, 실업률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이코노미스트들도 향후 12개월내 미 침체 가능성은 50% 미만이다.
- 한편 파월 연중 의장은 앞으로 수개월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명확한 방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했을 때는 단 한번, 1994~1995년 때였다. 앨런 그리스핀 의장 당시 연준은 금리를 6%로 두배 올렸고,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고 둔화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신용 결생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Why is the US dollar losing its shine? 달러 약세 이유는?**

- 투자자들이 금리 기대치를 낮추면서 이달에 미국 달러화 하락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작년 9월 달러는 20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그러나 하락세가 시작된 것은 경기 침체 우려와 미 지역은행 3군데의 파산, 미국 지출 우려 때문이었다.

- 이제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도 거의 마감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다른 주요 화폐와 비교한 미국 달러 지수가 1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 그러나 향후 연준은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가 마무리되고 다른 중앙은행들이 연준 금리 인상 후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연준을 따라 하고 있는 형국이다.
- 다행히 달러 하락은 일부 기업의 수익에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불리한 환율로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만든 주요 기술 기업들의 수익에 부담을 주었다.

CNN Business 기사

### [서부 항만]

#### **CNBC: Rail freight from Canada to U.S. continues to drop after ports strike**

캐나다 → 미국 철도 교역량, 계속 감소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철도 교역량이 3주 연속 감소했다. 캐나다 서부 해안 항구의 파업 때문이다.
- 선박과 컨테이너 체증 때문에 원활한 운송이 되지 않아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 미국 철도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총 철도 교역량이 12% 감소했다. 파업 첫 주에 캐나다발 철도 교역량이 46%, 두 번째 주에는 36% 감소했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American Workers Are Finally Taking Guilt-Free Vacations**

미국 근로자들 드디어 휴가에 죄책감 없어

- 요지: 지난 수년간 유급 휴가를 포기했던 미국 근로자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 일부 고용주의 경우는 휴가를 가지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사실 지난 수년동안에는 팬데믹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우려로 미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에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노동부 데이터에 따라 올해 상반기 더 많은 미 근로자들이 팬데믹 이전 해보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30만개 이상의 근로자 휴가 요청을 추적하는 기술 회사 Gusto에 따르면 6월 휴가 신청자가 2022년 동월대비 11%, 2021년 6월에 비해 20% 증가했다.

- 휴가 사용 시간도 작년보다 5% 늘어난 평균 32일로 나타났다.

## WSJ 기사

### WSJ: An Exodus of Talent Is Imperiling Goldman's Overhaul 골드만삭스, 인재들 떠나 조직 개편 위협받다

- 골드만삭스 전략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산 관리 부서 임원들이 대거 퇴사했기 때문이다.
-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 관리 최고투자책임자 Julian Salisbury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 투자 부문 책임자 Takashi Murata가 떠났다.
- 게다가 Julian Salisbury의 퇴사로 11명의 골드만 파트너 중 6명이 퇴사 했거나 퇴사할 예정이다.
- 최근 몇 년 동안 자산 관리 부서에 변화가 있었다. 일부 경영진은 이를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 WSJ 기사

### WSJ: Inside Walmart's Warehouse of the Future Walmart의 미래형 창고 내부 모습

- 예전 월마트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던 수백 명의 일자리가 로봇 팔,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바뀌고 있다.
- “나는 로봇이 트럭에서 물건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로봇 뒤에서 문제 처리만 할 뿐이다”라고 종업원 51세 Molina가 말했다.
- 그는 3개월 전 이 시설에서 자율 지게차 운전자가 되었다. 또한 수작업이 줄어들고, 소프트웨어 지식이 더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 자동화 업무로 전환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월마트 공급망 근로자는 시간당 평균 25.50불을 받는다.

## Bloomberg 기사

### WSJ: Intel Returns to Profit as PC Rebound Lifts Chip Demand Intel, PC 수요 회복으로 수익 찾아

- 인텔 주가가 지난 2분기 손실에서 반등하며 급등했다. 인공 지능 붐으로 인한 새로운 수요가 예상 되었기 때문이다.
- 이 회사의 15억 불 이익은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는 인텔이 전 분기에 보고한 27억 6천만 불 적자 이후에 나온 것이다.

- CEO Pat Gelsinger는 “최근 몇 분기 동안 PC 및 데이터 센터 부문이 부진했다”며 “하지만 AI에 대한 높은 수요 덕분에 이 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인텔의 2분기 매출이 전 분기에 비해 증가해 129억 불에 달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다.

WSJ 기사

### WSJ: Facebook Bowed to White House Pressure, Removed Covid Posts Facebook, 백악관 압력 수용해코로나 게시물 삭제

- 페이스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man-made)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포함해 팬데믹과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백악관의 압력이 있었다.
- 소셜 미디어에서 이러한 백악관의 압력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백신 채택 및 기타 공중 보건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미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셜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Karine Jean-Pierre 백악관 비서관이 말했다.

WSJ 기사

### CNN Business: McDonald's teases new CosMc's restaurant concept 맥도날드, 새로운 CosMc's 레스토랑 콘셉 공개

- 맥도날드가 이른바 CosMc's 라 불리는 새로운 레스토랑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맥도날드의 캐릭터.
- 맥도날드는 내년에 일부 매장에서 이 개념을 테스트하게 된다.
- CosMc는 맥도날드 음식을 갈망하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으로, 수십 년 전 맥도날드 광고에 등장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경기 확장 가능성 커져" vs "연착륙 낙관 후 종종 침체"

미 유력매체들, 2분기 기대 이상 성장 놓고 반응 엇갈려

WSJ "경기 확장 4~5년 갈 수도"...NYT "금리 효과 등 불확실성 여전"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 우려를 비웃듯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올해 2분기 기대 이상의 성장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장에는 낙관론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덩달아 일부에서는 꾸준한 성장세와 함께 완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확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잇따른 금리인상이 물고 올 파급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